

업그레이드 me

웰빙의 마무리 '웰다잉' 가이드 라인

아름다운 삶을 위한 품위있는 죽음 준비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 사람들은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매달린다. 병상에서 말기암으로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고...

음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라=자필 유언장의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유언장에는 전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의 5가지가 필수요건이라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막상 죽음을 준비하고 맞서는 일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담담하게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언장 미리 작성하라

시한부 삶은 일기 써라

유언 신탁서비스 이용

내용·날짜·성명·날인
임종·장례방식도 명기

현금·귀금속 보관장소
금융·재산내역 상세히

유언장 작성·집행 대행
상속재산 분쟁 줄여줘

그러나 죽음준비는 유한한 삶의 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라는 말과 같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더라도,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 준비를 하라는 의미다.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유언장에 쓰고 미리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시한부 삶이라면 일기를 써라=일기 쓰기도 권장된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 혹은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두면 유언장이 된다.

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각종 증명서류와 현금이나 귀금속을 보관한 장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한 장소를 기록한다. 은행대출이나 빚에 대한 정보도 남겨야 한다. 시신이나 장기 기증에 서약했다면 동의서와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적어두고, 가족에게 평소 알려준다. 보호자는 사망 후 즉시 사망의 장기기증본부로 연락을 줘야 한다.

있다. 또 변호사, 세무사와 함께 유언서 작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준다.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등 유언 집행을 대행해준다.

은행권에서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유언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번호사와 세무사가 유언 작성을 상담해주며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줄여준다.

유언서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재산 목록 등을 적은 문서, 즉 '유훈(遺訓)'이 있다면 은행 금고에 보관해 준다.

유언신탁 상품도 있다. 기본 계약을 맺으면 유언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유언서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언서 보관 수수료를 내면 된다.

고객이 원하면 사후에 유언서 내용대로 은행이 유언을 집행하거나 신탁을 설정해 자산을 운영·배분해 주는 서비스까지 선택할 수 있다. 한국죽음학회는 "죽음은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소용하면서 아름답게 임하는 삶의 한 장면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죽음을 무섭고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사 안내 도우미·화장 인터넷 예약...

영락공원 이용 편리해진다

전국 최대 장사시설을 갖춘 광주 영락공원이 전국 최초로 장사시설 안내 도우미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화장장 인터넷 접수, 첨단 제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는 3일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유족)의 장사시설 이용 정보 및 이해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 이중부담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도우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영락공원에 화장 및 매장 시설의 접수할 때 광주 시내 어디서든지 유가족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하고, 행정공동이용 전산망을 설치·가동해 국·공유일에 상관없이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락공원 안내도우미란=전국 최대 규모 장사시설을 갖춘 광주 영락공원은 매장장 화장장 화장 시설로, 경찰이 없는 유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영락공원을 이용할 지 막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방문한 유족들이 영락공원에 도착해 장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장사절차에 대해 친절 안내를 하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유족 편의를 배려한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매장장 화장장으로 장사문화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유족 상당수가 화장 장례방법을 몰라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안내도우미는 화장 후 봉안당 안치와 2기를 평장분묘, 6기용 가족봉안묘, 자연장 등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절차를 유가족에게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화장 후 봉안당 안치와 2기를 평장분묘, 6기용 가족봉안묘, 자연장 등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절차를 유가족에게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친화하는 광주 영락공원=영락공원이 안내도우미 제도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터넷 예약제 시행, 첨단 제례시스템 도입, 부부단 및 개인단 봉안당 도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이버 홈페이지 개편 등은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스템이다. 도시공사는 또 내년 상반기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이미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서는 최첨단 최신택 시설을 갖춘 제2추모관에는 첨단 제례시스템을 도입, 유족이 고인의 영정사진 없이 제례실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영정사진을 나타내게 해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인터넷에서도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가림 시설, 화장실 2곳 증설과 유가족의 편의시설인 파고라 3곳 확충, 화장동 및 관리동 도색 등 시설 보안을 마칠 예정이다.

김영진 광주도시공사사장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광주만이 유일하게 화장장 매장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뛰어나 서울에서도 영락공원을 찾은 정도"라며 "그만큼 장례기반시설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최대 장사시설을 갖춘 광주 영락공원이 장사 안내 도우미제와 화장 인터넷 예약제 도입으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Table with 4 columns: Day, Operating Time, Adult Price, Child Price (5-7 years), and Child Price (8-14 years). Rows for LUNCH and DINNER for both weekdays and weekends.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아이엘리시아